

# 연길 3세 어린이, 세계 신기록 달성



▲ 19 초 만에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데 성공하여 WRCA 세계 신기록을 세운 왕월침 어린이(앞줄 가운데)

최근 연길시 3세 어린이 왕월침(王玥琛)이 WRCA 지능형 장난감 부문 인증관이며 50개 세계기록 보유자인 엽가화(葉加華)와 디지털 화용도(數字華容道) 세계기록 보유자인 엽천일(葉天逸) 아예 19 초 만에 루빅스 큐브(三階魔方)를 맞추는 데 성공하여 20 초 이내에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최연소 기록으로 WRCA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왕월침은 6개월전 우연히 큐브를 접한 이후 곧바로 큐브 맞추기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장화씨 선생님(張華氏)이 저희 아이의 스승이었다."며 "장선생님의 참신하고 흥미로운 교수법이 큐브 지식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어 아이에게 큐브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고 덕분에 아이는 완전한 초보자 단계에서 완벽하게 큐브를 맞추는 단계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왕월침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자 장화씨는 그녀를 동수인과 제계홍 두 선생에게 추천했다. 두 선생은 왕월침을 위해 맞춤형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동수인은 큐브 맞추는 논리를 정리하고 회전 리듬을 최적화했으며 제계홍은 손동작을 교정하고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들의 협력적인 지도 아래 왕월침은 4개의 전국 최연소

큐브 완성 기록을 잇달아 경신했으며 현재까지도 4×4 큐브 최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초, 왕월침은 세계기록 보유자 두우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더욱 높은 난도의 3×3 6색 큐브 F2L 완성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복잡한 공식과 까다로운 요구에도 왕월침은 뛰어난 기억력으로 빠르게 습득해 결국 세계 최연소 3×3 6색 큐브 F2L 선수로 되었다.

타고난 재능 외에도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왕월침의 부모는 이전에 큐브 맞추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딸의 열정을 보고 함께 배우며 연습에 힘썼다. 처음 입문할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옆에서 지도해주며 왕월침이 즐거움 속에서 자기 흥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부모의 헌신이 왕월침이 세계기록을 여러차례 경신했을 수 있었던 강력한 지원으로 되었다.

큐브를 처음 접했을 때의 꼬마로부터 세계기록 창조자로 성장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배후에는 4명 스승의 세심한 지도와 부모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재능과 사랑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최고의 성장이란 전문적인 지도와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연변조간신문



## 상해 조선족 기업인들, 룡정축구구락부에 200 만원 기증



3월 22일,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연합발전사업위원회상해지회는 연변룡정축구구락부에 200 만원을 기증하여 연변축구사업의 발전에 응원의 손길을 보냈다. 2025년 3월 3일에 설립된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연합발전사업위원회는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가 설립한 조선족 기업이 연합기업이다. 해당 위원회는 전국 조선족 기업이 자원을 통합하여 지역 경제협력과 민족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협력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리사장 장문길은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련

합발전사업위원회상해지회의 지지와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다.

오래전부터 '축구의 고향'이라는 미명을 지니고 있는 연변은 축구문화의 저력이 두터운바 민족문화와 스포츠 정신이 융합된 중요한 매개체이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연변축구 진흥, 축구인재 양성, 민족문화 선양을 사명으로 체육사업과 민족문화의 협동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연변축구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민족문화교류의 촉진, 지역의 협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 연변주, 첫 '국제 태극권의 날' 기념 주제 행사 개최

3월 21일, 연변주에서는 '건강한 인생, 태극과 함께' 첫 '국제 태극권의 날' 기념 주제 전시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 지역이 연동하고 전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태극권 문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전민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기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행사는 '태극은 연변을 적시고 건강은 나와 함께(太極潤延邊, 健康伴我行)'를 주제로 중미융합미디어와 길림성태극권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 및 8개 현(시) 무술(태극권) 협회에서 주관하였다. 주회장은 연길시연변체육중심에 마련되고 분회장은 돈화, 훈춘, 양청, 안도에 설치되어 통일된 시간, 주제, 구령 방식으로 사회구역, 광장, 건강운동 거점과 연계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하고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25년 11월, 유네스코는 매년 3월 21일을 '국제 태극권의 날'로 제정, 이는 최초의 무술 종목의 기념하는 국제 기념일로서 의미를 가진다. 주회장에서 연길, 도문, 화룡, 룡정 출신의 무술협회 및 태극권 거점 대표팀이 질서있게 대렬을 짓고 통일된 구령에 따라 우아한 동작을 선보였다.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펼쳐진 태극권 13식은 절도있고 운치있는 동작을 선보이고 24식 간화 태극권은

흐르는 구름과 물처럼 유연함과 강함,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태극권이 지닌 차별함과 내면적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현(시)의 분회장에서도 연동 행사가 진행되어 중로년 및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태극권애호가들이 모여 정해진 공연 종목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각 세대별 태극권의 매력을 뽐냈다.

자유 종목 공연에서는 연변지역의 민족 특색을 융합한 태극권 기구 품세가 주회장과 분회장에서 함께 선보였다. 이는 전통 무술과 지역 문화를 깊이있게 융합하여 '태극권+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였으며 현장 관객들은 태극권 문화와 연변지역 문화의 완벽한 조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최근년간 연변주무술협회는 태극권 문화를 기층에 알리고 대중 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공의 교육과 전시 교류 활동 조직, 전방위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태극권 운동을 기관, 학교, 사회구역으로 확대하여 대중의 건강운동 기반을 계속 다져왔다. 이번 행사는 연변주 태극권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연변뉴스넷

### [교원수기]

## '미운 오리새끼'와 '천사표 선생님'

찌근찌근 잠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천사같다고 표현하곤 한다. '천사'는 선량하고 어진 사람을 비유하거나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매 학급마다 개별 유아가 있는데 현재 우리 학급에는 열가지 행동을 하면 열가지 행동 모두 미운 짓을 하는 어린이가 있다.

여지껏 보아온 개구쟁이들은 아무리 살짝하게 장난을 쳐도 한두가지의 장점, 귀여워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랑(가명)'이라 불리우는 이 어린이는 귀여운 부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옆 공주님의 머리핀을 잡아당기거나 줄지어 길을 때 친구의 발을 밟는 것은 일상이었고 손을 씻은 후 친구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은 다반사... 정말이지 아이이지만 심보가 고약한 행동만 하는 사랑이가 솔직히 알립게만 보였다.

하여 사랑이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성격이 사나워지는 것 같았다. 매일 '천사' 구호를 웨치는 우리 세쌍유치원에서 사랑이에게 나는 과연 어떤 선생님일까? 천사같은 교원이라고 하기에는 사랑이가 날 마음에 걸렸다.



▲ 박혜림선생님과 아이들

하루는 '오늘은 사랑이의 장점 하나를 꼭 발견하고 말테야!'라는 결심을 안고 출근했다. 제일 앞자리에 책상을 따로 놓고 사랑이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아침 자유선택 활동 시간부터 쪽 곁에서 지켜보면서 드디어 하나의 장점을 발견했다. 1년여 넘게 우리 학급의 '1호'로서 선생님들을 '악마'로 변신시키던 '능력

자' 사랑이, 그런 그에게는 색칠할 때 그림종이를 스스로 돌리며 빈틈없이 예쁘게 색칠하는 능력이 있었다.

두번째 날에도 사랑이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훌륭한 작품 만들어내는 모습을 발견했다. 기회를 놓칠세라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이는 개별 교육의 진정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미운 행동만 하는 사랑이에게 장점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며 우리 학급의 1호로 락인 짝은 것은 어쩌면 우리 교원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개별 유아의 특별함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다.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했던 사랑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와준 사랑이가 고마웠다.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속의 천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인정하는 천사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사' 구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루종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개별 유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교원이 진정한 천사같은 교원이 아닐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장점을 관찰하고 칭찬과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개별 유아의 특별함을 의미있게 바라보는 '천사표 선생님'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연길시세쌍유치원 박혜림

图说 我们的价值观

# 行善是福

天津大郑剪纸

## 中华有福

爱国
自由
富强

敬业
平等
民主

诚信
公正
文明

友善
法治
和谐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